

이슈브리핑 vol.332 2025년 12월

ISSUE
BRIEFING

통합돌봄지원법 시행과 전북형 돌봄정책 방향과 과제

연구책임

이중섭 선임연구위원



Jthink
전북연구원

요약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돌봄수요의 확대와 고립은둔 청년 증가나 중장년 고독사 등 신사회 문제에 대응하여 국가에서는 돌봄통합지원법을 2024년 제정하고 이후 2년여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 3월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다. 복지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국토부와 행안부, 농림부, 문체부 등 4개 부처장이 참여하는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의 돌봄정책의 방향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통합돌봄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의 정책방향에 조응하여 지역차원의 돌봄서비스의 신규발굴과 함께 기존 돌봄서비스의 통합과 연계조정을 통한 지역주민의 돌봄안전망 구축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도 지난해부터 사회복지정책과를 중심으로 전북형 돌봄정책 추진을 위한 전문가간담회를 운영하며 국가의 돌봄정책과 연계한 지역차원의 맞춤형 돌봄을 어떤 형태와 내용으로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지를 고민중에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돌봄수요가 높고 농어촌 지역은 취약한 보건복지인프라로 인해 돌봄서비스의 제공에 많은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북형 돌봄정책이 구상되어야 한다.
- 전북형 돌봄을 위해서는 먼저 ① 국가의 돌봄정책과 연계한 보다 촘촘한 돌봄안전망 구축, ② 고립은둔청년과 1인가구의 확대 등 신돌봄수요에 대응한 돌봄지원체계 마련, 그리고 ③ 돌봄의 필요도에 기반한 모든 도민 대상 포용적 돌봄제공 기반 조성을 목표로 다층적 돌봄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 전북형 돌봄은 취약계층 중심의 국가주도 기본돌봄과 기존 돌봄서비스의 유기적 통합과 연계에 기반한 보충적 돌봄 그리고 일반지역주민의 일상적 돌봄수요에 대응한 특별돌봄으로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충적 돌봄과 특별돌봄단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는 시군구와 함께 기존 돌봄서비스의 종괄조정과 통합돌봄제공을 위한 전담부서의 설치, 돌봄서비스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한 민관 돌봄협의체 구성 등을 내실있게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 또한, 국가돌봄과 보충돌봄에서 누락된 지역주민의 돌봄수요를 수렴할 수 있는 특별돌봄을 신설하여 모든 도민이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 전북형 돌봄은 기존 요양이나 보호 중심의 단순한 돌봄에서 주거지원, 식사지원, 가사지원, 이동지원, 의료지원, 그리고 긴급지원 등이 돌봄욕구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전달체계도 개선해야 한다.

1

추진배경

○ (돌봄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전략 마련)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돌봄비용의 확대에 대응하여 지역단위 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돌봄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 필요

- 돌봄수요의 확대로 인해 전북자치도의 요양병원은 2008년 18개에서 2022년 180개로 크게 증가하여 돌봄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동반 상승
- 특히 전북자치도는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전체 의료비에서 노인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63.7%를 차지하고 있어 노인의료비 증가에 따른 사회적 부담도 확대(전체 진료비 4.8조원 중 3.1조원)

* 사적간병을 최소화하고 노인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을 연계한 돌봄안전망 구축 필요

○ (공적돌봄의 미흡으로 인한 돌봄사각지대 해소) 국가주도의 공적돌봄정책의 미흡으로 인해 광범위한 돌봄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돌봄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돌봄안전망 구축 필요

- 현행 돌봄정책은 저소득 취약계층과 와상의 노인 및 장애인 중심의 보호에 치중되어 있어 다양한 계층의 광범위한 돌봄수요를 수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 공적돌봄의 부족으로 인해 사적간병에 투입되는 비용은 2008년 3.6조원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10조원 이상 증가하고 있어 돌봄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 대책 마련 필요

○ (新돌봄수요의 등장에 따른 예방적 돌봄체계 구축) 고립은둔청년이나 가족돌봄청년, 1인 가구의 확대 등 새로운 돌봄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신사회적 위험에 대응한 예방적 돌봄체계 구축 필요

- 가족돌봄청년은 최소 1.3만명에서 최대 4.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고립은둔청년도 약 1.5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지만 현행 돌봄정책에서 고립은둔과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돌봄정책은 미흡한 상황

- 고립과 단절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한 예방적 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청년과 중장년층의 안전한 사회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대안 마련 필요

○ (돌봄정책의 연계를 통한 통합돌봄기반 조성) 현행 돌봄정책은 대상별(아동, 장애인, 노인)과 내용별(주거, 이동, 식사, 가사 등)로 파편화되어 있어 돌봄서비스의 연계와 조정을 통한 맞춤형 돌봄 필요

- 현행 돌봄서비스는 지원대상과 돌봄서비스의 유형별로 파편화되어 있어 돌봄이용자의 돌봄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낮고 돌봄비용의 효율적 운영에도 한계 작용
- 돌봄대상과 돌봄서비스의 내용별로 산재되어 있는 돌봄서비스의 전달체계를 일원화하고 돌봄욕구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을 연계·조정하여 돌봄정책에 대한 도민의 체감도 향상 견인 필요
- 민관연계형 통합돌봄기반 조성을 통해 돌봄대상자의 적극적 발굴과 돌봄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기반 조성 필요

2

돌봄통합지원법 제정과 시행

○ (돌봄통합지원법 개요)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시행

- (목적)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본인이 생활하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 그리고 돌봄을 통합 및 연계하여 제공

- (대상)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장애인 등

* 의료돌봄필요도가 높고 복합적 돌봄욕구가 있는 우선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지원체계 구축하고 지원대상자는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지원내용) 보건의료(재택의료, 방문간호 등),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가사·이동·식사 지원 등), 가족지원 등 돌봄서비스 확대 및 연계

○ (국정과제 주요내용)

- (통합돌봄 체계구축) 통합돌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전담조직 구성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간의 유기적 연계체계 구축

- (대상자 및 서비스 확대) 현재 노인위주의 대상자를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가의료 및 재가요양과 일상돌봄 중심으로 돌봄서비스 확대

- (서비스제공기관 확충) 재택의료센터와 공공의료기관 (공공의료, 요양기관, 보선소 등) 참여 등 서비스 제공 기관의 기능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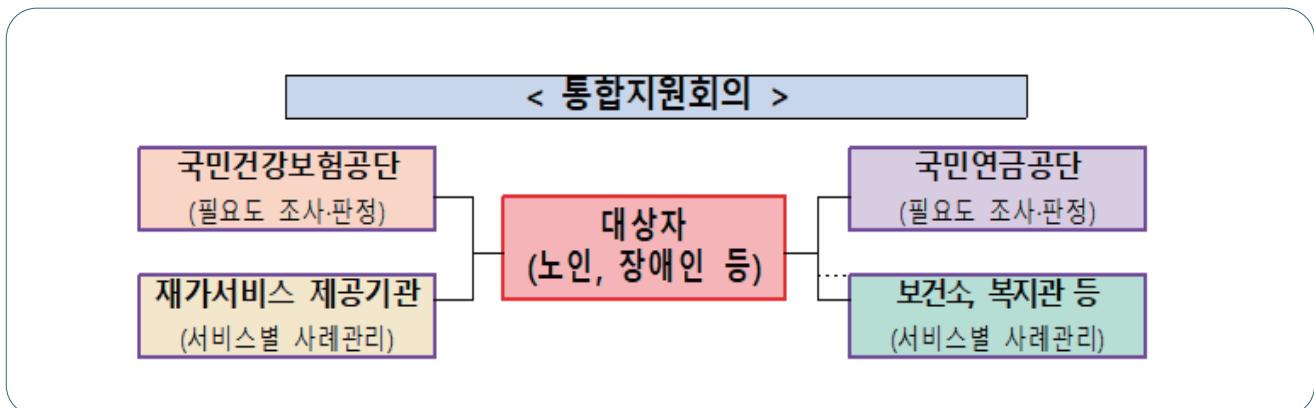
○ (통합지원 절차)

- (신청·발굴·조사) 통합돌봄서비스는 본인 등(가족, 관련 기관 담당자)이 신청할 수 있고, 또는 시군구에서 발굴, 직권 신청

- (종합판정) 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전문기관에서 의료·요양 필요도 조사 및 판정

- (통합지원) 시군구에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지원회의(시군구, 읍면동,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서비스 제공계획을 승인 및 조정

〈그림-1〉 통합지원회의 구성



자료 : 이선식(2025)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방향

3

전북특별자치도 돌봄 추진방향

» 전북형 돌봄정책 추진방안

○ (촘촘한 돌봄안전망 구축) 전북특별자치도 돌봄정책은 국가의 돌봄정책과 연계하여 촘촘한 돌봄안전망 구축 추진

- (다층 돌봄안전망 구축) 국가에서 추진하는 통합돌봄과 기준 지역자원의 다양한 돌봄과 연계하여 다층의 촘촘한 돌봄안전망 구축
- (국가돌봄의 보충적 돌봄안전망 구축) 국가의 돌봄 정책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중심의 돌봄정책으로 일반 지역주민의 일상적 돌봄서비스는 부재한 상황으로 국가돌봄과 연계한 돌봄의 확장 지원 추진

○ (新돌봄수요 대응 돌봄안전망 구축) 돌봄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돌봄수요(고립은둔 청년, 1인 가구, 소외 중장년 등)등에 대한 종합적인 돌봄정책 지원

- (새로운 위험사회 대응 돌봄) 사회적 고립의 심화에 따른 고립운운 청년 및 1인 중장년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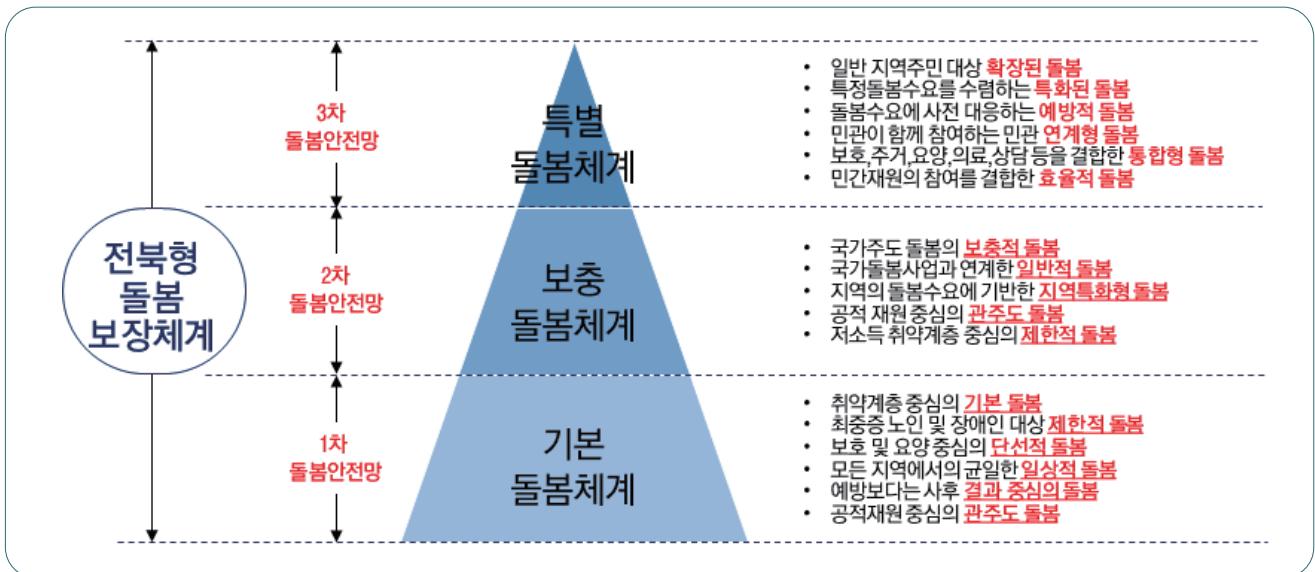
- (新신돌봄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돌봄) 고립은둔청년 및 중장년, 재가노인 등 돌봄대상자의 수요에 기반한 상담, 재활, 의료 등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 (모든 도민대상 포용적 돌봄 제공) 돌봄필요 정도에 따라 모든 도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포용적 돌봄

- (돌봄필요도 기반 통합돌봄 제공) 돌봄필요도에 기반한 돌봄수요 도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돌봄서비스 제공

- (소득수준별 돌봄서비스의 차별화) 돌봄수요가 있는 도민대상으로 돌봄 욕구에 맞는 차별화된 돌봄서비스 제공

〈그림-2〉 전북형돌봄 다층적 돌봄지원 구조(안)



〈표-1〉 전북형 돌봄정책 구조(안)

구분	돌봄대상	1차 안전망 (기본돌봄)	2차 안전망 (보충돌봄)	3차 안전망 (특별돌봄)
영유아 · 아동	• 출산전후 영유아 • 방과후 돌봄 수요 아동	• 아이돌봄지원서비스 • 지역아동센터 • 다함께 돌봄 • 초등돌봄/방과후돌봄 •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 가사간병방문지원 • 공동육아나눔터 • 농번기돌봄지원	• 산모신생아건강한 아동복지 • 산후건강한 아동복지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 유치원돌봄교실 • 초등돌봄교실 과일지원	돌봄필요에 따른 8대+& 지원 • 의료돌봄 • 가사돌봄 • 이동돌봄 • 시설돌봄 • 주거돌봄 • 식사돌봄 • 동행돌봄 • 안전지원 • 긴급지원(&)
청년	• 고립은둔 청년 • 가족돌봄 청년	• 일상돌봄		
장애인	• 퇴소준비 시설장애인 • 재가 장애인 • 일상생활장애인(ADL, IADL) • 장애아동 • 장애가족	• 장애인활동지원 • 가사간병방문지원	• 장애인활동지원(추가) • 긴급돌봄 • 텁새돌봄 • 전북형 영유아발달증진	
노인	• 장기요양노인(장등급외자) • 장기요양 미수급노인 • 장기요양 재가노인 • 치매노인 • 독거노인 • 돌봄필요 노인(별도조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맞춤형돌봄 • 가사간병방문지원	•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 긴급돌봄 • 텁새돌봄	
장년	• 병원입원 환자 • 자녀돌봄 가족(병원동행) • 빈곤가정 주민 • 독거 중장년	• 일상돌봄 • 가사간병방문지원		
일반도민	• 돌봄욕구가 있는 전체 도민 * 돌봄필요도 조사 후 적격자	• 가사간병방문지원		
재원		국비+도비+시군비	도비+시군비	도비+시군비+자부담

» 전북형 돌봄정책 대상

○ (돌봄대상) 전북형 돌봄의 지원대상은 영유아, 노인, 장애인, 청년, 장년, 지역주민 등 6대 영역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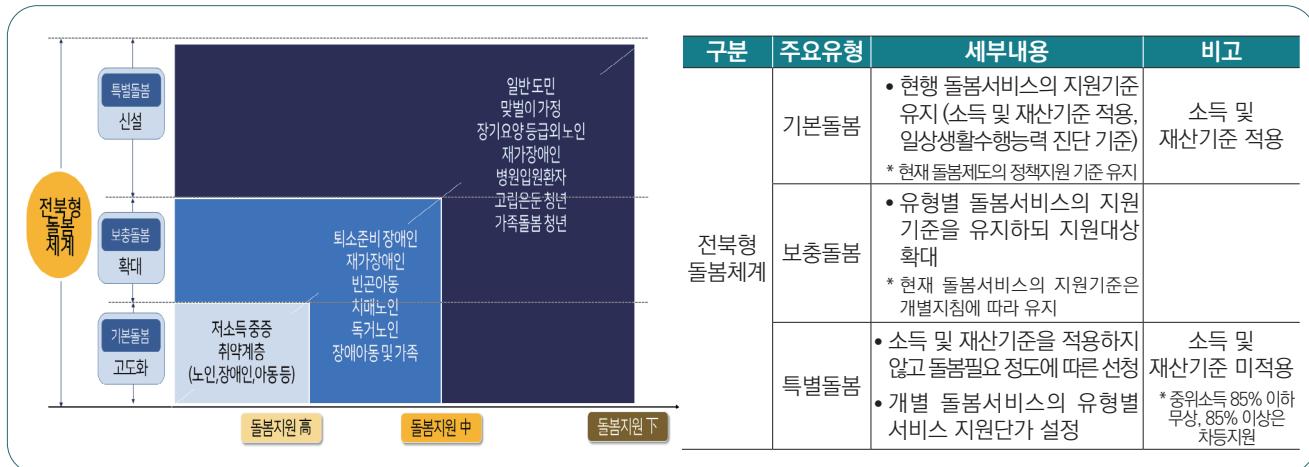
- (지원대상) 아동에서 노인에 이르는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돌봄욕구에 맞는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 기본돌봄을 기준으로 기존 돌봄체계에서 배제 되었거나 돌봄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했던 돌봄수요를 추가로 발굴하여 지원(ex 병원입원환자,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장기요양 등급외 노인, 맞벌이 가정 등)

- (선정기준) 소득이나 재산, 연령 등에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정도(돌봄필요도)에 근거한 대상자 선별

- (비용기준) 기본돌봄과 보충돌봄은 기존 돌봄서비스의 지원기준을 유지하되 지원대상은 추가로 확대하고 특별돌봄은 중위소득 기준으로 지원금액 차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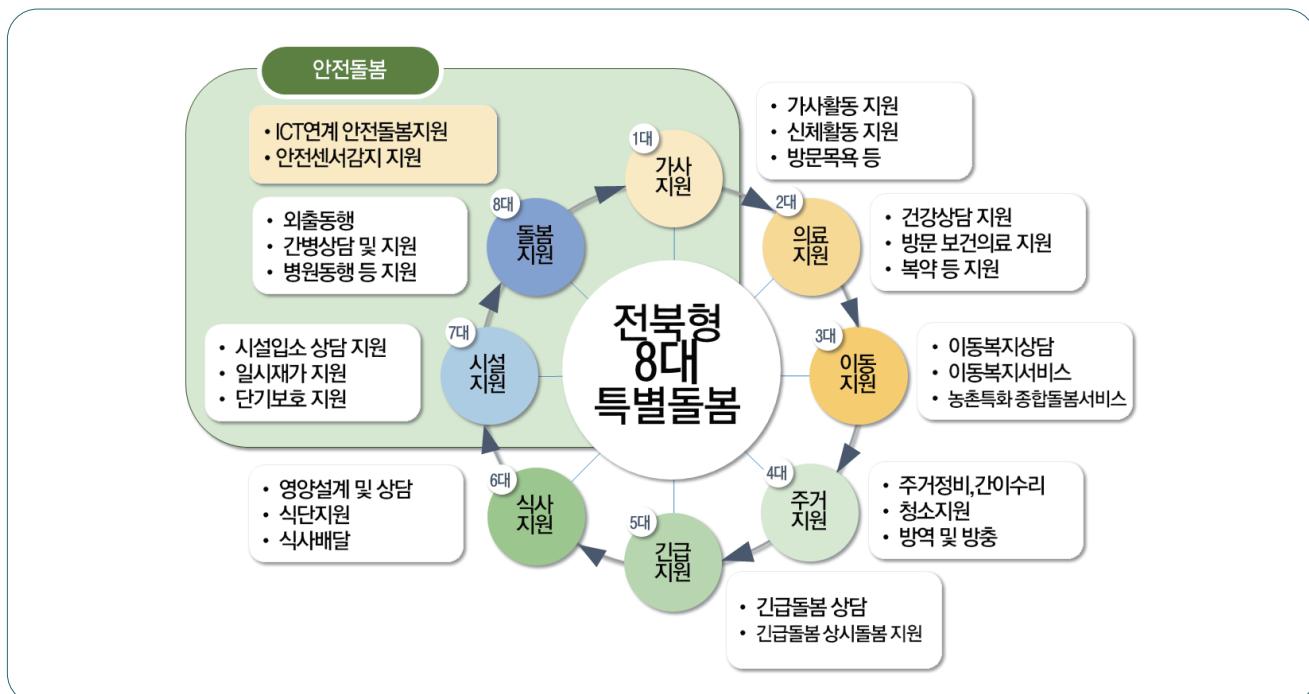
〈그림-3〉 전북형 돌봄체계 지원대상 분류



» 전북형 특별돌봄 추진방안

- (돌봄지원분야) 전북형 특별돌봄은 가사지원, 의료지원, 이동지원 등 총 8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상황에 대응한 긴급돌봄 제공

〈그림-4〉 전북형 특별돌봄 전달체계



〈표-2〉 전북형 돌봄정책 지원대상 및 사업 구분

구분	영유아, 아동(생후~만12세)	청소년(13세~19세)	청년(20~39세)	중장년(40~64세)	노인(만 65세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생후3개월~만13세 이하 / (4,493명) [돌봄, 등하원, 준비물 쟁기기 등]				
산모신생아 건강한 아동복지(도)	확대 [출산일 이후 12개월 [산모 건강관리 및 가정방문돌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도)	확대 [출산 전 30일~ 출산후 150일]				
유치원돌봄교실 운영(도)	확대 [만 6세 미만 [운송일, 저녁, 방과 후 돌봄연장 돌봄]				
찾아가는 돌봄교실	확대 [총는 만6세 미만 아동 /놀이치료방 방문 놀이]				
초등돌봄 간식지원	신설 [초등1~2학년 13,257명 고양之处 제공]				
공동육아나눔터	고도화 [만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족 모두 / 4,511명 자녀돌봄 공연제공, 부모자녀 프로그램 운영, 공동육아지원, 놀이활동지원]				
지역아동센터	고도화 [만18세 미만 아동(우선돌봄아동 및 일반아동 저원의 50% 이내) / (7,527명) 방과후 신체, 인지,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제공]				
농번기 아동돌봄지원	고도화 [2세~9세 이하 [아이]돌봄방 설치운영]				
다함께 돌봄	고도화 [만6~12세 / (837명) 일시돌봄, 방과후 하원 지원 등]				
초등돌봄/ 방과후 돌봄	고도화 [7세~12세/(15000명) 학교돌봄, 학습지원]				
방과후 아카데미	고도화 [만10세~만17세 / (920명) 방과후 체험활동, 학습지원 등]				
청년미음강지원	확대 [만19~34세 이하 청년/ 347명 상담,심리정서 지원]				
일상돌봄서비스	확대 [돌봄필요 중장년 및 가족돌봄청년 / 전주, 군산, 남원, 김제 등 4개 지역]				
긴급돌봄	확대 [주돌봄자 부재, 질병, 사고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자 / 가정방문 신체활동 지원, 기사 및 이동지원서비스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	고도화				65세 이상 노인성 질병 / (57,628명) 신체,기사활동, 목욕, 간호 등
노인맞춤돌봄	고도화				65세 이상 기초수급 및 치상위 / (38,134명) 사회참여, 일상생활지원
장애인활동지원	확대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장애인 / (5,163명) 신체활동지원, 기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기사간병방문지원	확대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만 65세 미만 기준증위소득 70% 미만(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 (1,007명) 양육보조, 신체수습지원, 건강지원, 기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응급안전난심서비스	확대 [독거노인, 노인부구기구, 조선기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상시보호 필요 장애인 / 27,953명]				
전북형 특별 돌봄	신설 [전북특별자치도 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지역주민 (돌봄필요도 조사 후 지원)]				

4

전북형 돌봄 추진체계

» 돌봄서비스 추진체계 및 역할

○ (돌봄필요도 조사기반 돌봄유형 선별) 전북특별자치도 돌봄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의 통합판정체계를 기준으로 돌봄대상자 선별 추진 (1차 국가돌봄정책에서 누락된 돌봄대상자를 전북특별자치도 돌봄정책 대상으로 선별하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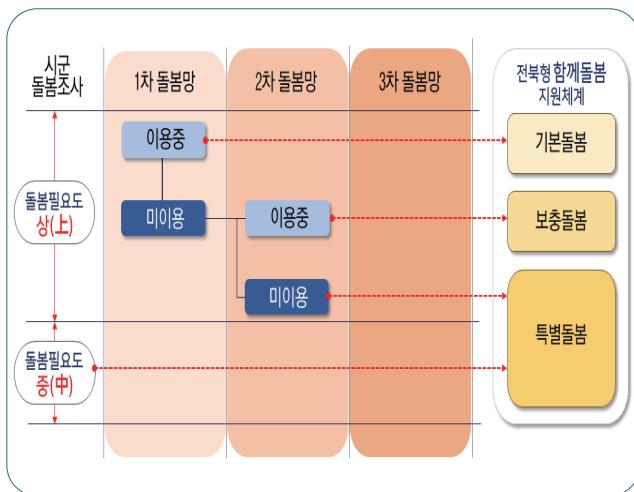
- (읍면동) 돌봄서비스 희망자 대상 돌봄수요 기초조사 실시 및 돌봄서비스 유형 선별

※ 읍면동에서는 돌봄서비스 신청자 대상 기초사전조사와 함께 돌봄수요의 유형(요양, 이동지원, 식사, 재활치료, 상담, 주거지원 등) 분류 및 연계

- (시군) 돌봄필요도 조사 및 개인별 돌봄지원계획 수립, 돌봄 제공기관 선정 및 돌봄서비스의 연계 조정(시군 단위 복지지원 연계), 돌봄서비스 이용 정산(돌봄제공기관 예산 지원)

※ 민관 돌봄협의체 구성(시군 돌봄전담부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등)을 통한 읍면동 돌봄대상자 사례회의 및 자원연계

〈그림-5〉 전북형 돌봄 지원체계



- (전북자치도) 전북형 돌봄종합계획 수립(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광역 돌봄협의체 구성(돌봄전담과, 전북사회서비스원, 광역공동센터 등), 돌봄대상자의 선별 및 분류, 돌봄 예산 배분 및 평가, 돌봄 정책 홍보 및 우수사례 전파

-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광역단위 돌봄종합계획 수립, 시군 돌봄지원계획에 대한 지원, 시군 돌봄지원정책 평가, 전북돌봄인력의 전문성강화를 위한 교육 등 추진
- 돌봄정책 개발 및 돌봄자원 발굴, 돌봄서비스의 연계(광역돌봄자원) 등을 위한 민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돌봄정책추진단 구성운영

[전북 돌봄종합계획 주요 내용]

- 돌봄대상자 및 돌봄자원의 발굴, 지원에 관한 사항
- 돌봄서비스의 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시군 돌봄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 돌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 돌봄전달체계 구축 및 돌봄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 돌봄제공기관 지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전북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돌봄종사자 교육, 돌봄서비스 광역지원 연계 조정

- 긴급돌봄서비스의 거점 지원기관 및 돌봄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돌봄종사자 교육과정 개발 및 지원

» 돌봄서비스 전달체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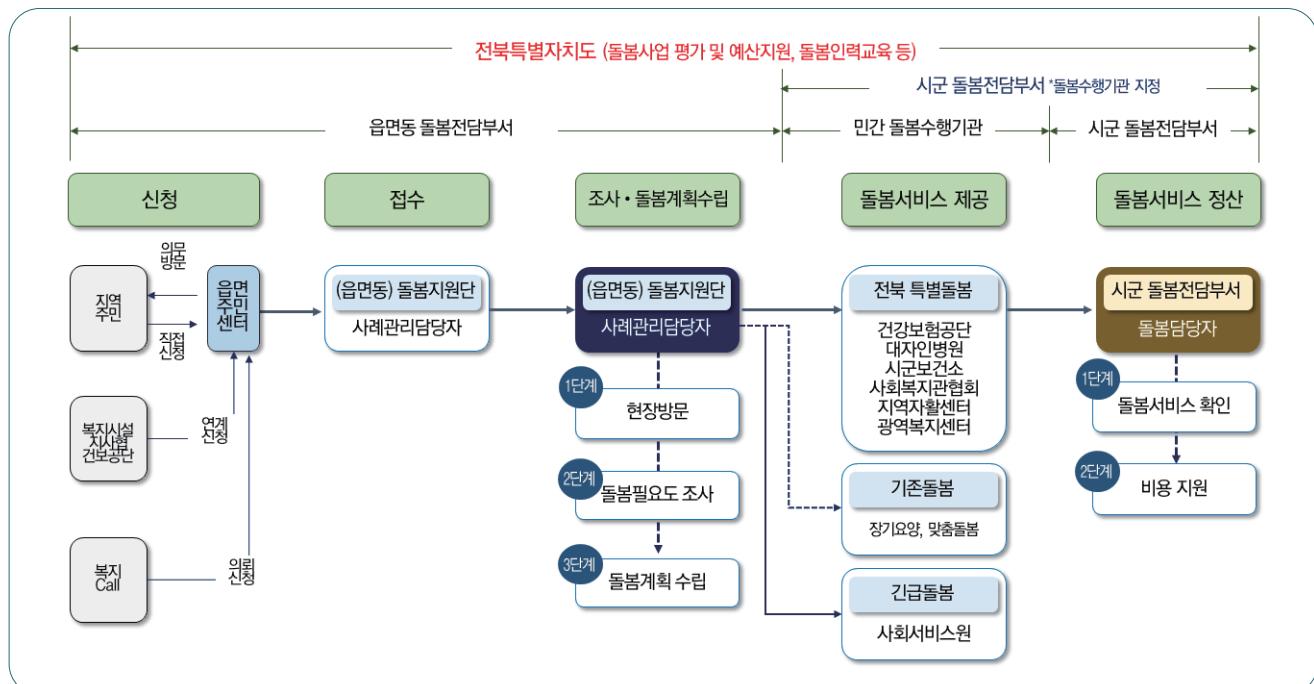
○ (돌봄전달체계) 돌봄서비스의 전달체계는 신청, 접수, 조사 및 돌봄계획 수립, 돌봄서비스 제공, 돌봄서비스의 정산 및 평가 등의 5단계로 추진

- (읍면동 돌봄창구) 신청, 접수, 기초조사 및 돌봄계획 수립을 통한 돌봄대상자의 돌봄서비스 전단계의 모든 업무 수행

통합돌봄지원법 시행과 전북형 돌봄정책 방향과 과제

- 읍면동 돌봄창구에서는 돌봄욕구 조사와 위해 현장 방문과 돌봄필요정도에 대한 조사 그리고 조사결과에 기반한 돌봄계획 수립 등 업무 추진
 - (민간제공기관) 읍면동의 돌봄조사에 기반한 돌봄 계획에 따라 돌봄서비스 제공
- 전북형 돌봄정책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민간제공 기관은 읍면동 돌봄계획에 따라 돌봄서비스 제공 및 돌봄기관 연계 등 업무추진
 - (시군구 돌봄전담부서) 민간제공기관의 돌봄서비스 제공 확인 및 돌봄서비스 연계조정, 돌봄비용 정산
- 시군구에서는 민간제공기관의 돌봄서비스 제공 내용 확인 후 돌봄내용 등에 기초하여 민간제공기관에 돌봄비용 지불
- (전북자치도) 돌봄서비스 전반 평가 및 예산지원, 돌봄인력 교육 등
 - 전북자치도는 사회서비스원을 돌봄인력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돌봄인력에 대한 교육과 돌봄서비스 진행 전과정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 진행
 - 전북자치도는 돌봄대상자의 발굴을 위해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건강보험공단, 복지시설 등을 협약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북형 돌봄교육 및 대상자 발굴과 연계 업무 지원

〈그림-6〉 전북형 돌봄정책 전달체계(안)



- (돌봄전담부서 운영계획) 돌봄서비스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해 도 및 시군별 돌봄전담부서의 구성 및 운영

- (공적전담부서) 통합돌봄추진단(전북자치도), 통합돌봄과(시군), 통합돌봄전담창구(읍면동) 구성운영

- (민간거점조직) 전북사회서비스원(긴급돌봄, 돌봄 인력 교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돌봄대상 발굴, 돌봄 지원 연계 등) 활용 민간지원의 연계 지원

» 스마트 돌봄지원체계 구축

○ 돌봄취약가구 인공기능(AI, IoT, IoT)을 활용한 실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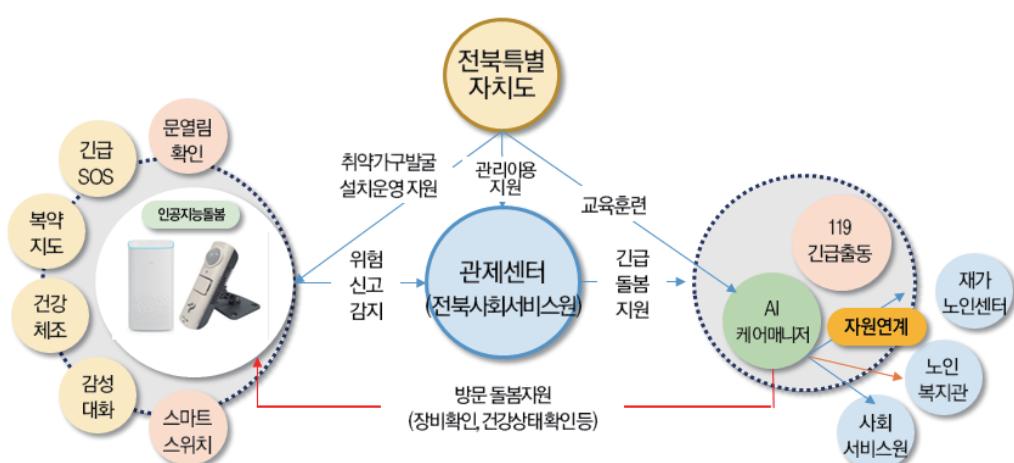
긴급 돌봄 안전지원체계 구축

- 독거노인 및 치매위험노인 등 고위험 노인가구 대상 AI 스피커 지원
- IoT센터 기반 스마트케어(문열림, 움직임 감지, 음성 인식 스위치) 기반 돌봄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을 관제센터로 지정하고 AI돌봄매니저 운영(스마트돌봄케어 설치가구 방문형 돌봄지원)

- 독거노인, 치매노인, 고독사 위험가구 등 위기가구 대상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지원서비스제공

〈그림-7〉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돌봄 지원체계



(인공지능 돌봄의 주요기능)

구분	주요기능	대상
인공지능 돌봄 특화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뇌톡톡 : 인지훈련 강화 퀴즈를 통한 치매예방 프로그램 기억검사 : 기억력 테스트 프로그램 소식톡톡 : 복약지도 등 유용한 건강정보 소식 제공 건강톡톡 : 타임워치 활용 자가운동 지원 	치매노인 독거노인 우울증상 노인
정서케어	음악감상, 감성대화 등	우울증상 노인, 독거노인
DATA기반 안심케어	DATA/부정발화 분석 및 심리상담, 미사용시 경고 알람	독거노인, 우울증상 노인
24시간 긴급 SOS	ADT캡스와 협력으로 위기 상황시 24시간 119 연계	치매노인, 독거노인
IoT기반 스마트 케어	문열림 확인, 스마트 스위치 등	치매노인, 독거노인

iSSUE BRIEFING

vol.332



발행인_전북연구원장 발행처_전북연구원

※ 이 이슈브리핑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전북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